

특별기고

광주에도 숲공원이 조성되길 꿈꾼다



김성호
동신대 교수

유럽에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여럿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외국 관광객 입국순위에서 톱랭커들이다. 영국과 독일, 동유럽권, 북유럽권, 지중해권도 관광천국이다. 유럽은 경관형 관광자원을 제외하고도 그리스, 로마시대 이래 다양한 유적을 자랑하는 관광명소와 문화관광자원이 넘치는 지역이다. 군소국가들이 많은 유럽의 어느 지역을 가도 오랜 역사만큼이나 구도시는 과밀하다.

그런데도 밀집된 도심에 광장을 다수 가지고 있고 관광지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니 놀랍고 부러웠다. 유럽의 광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살아온 옛 선조들의 중심지였으므로 역사적 애환과 삶의 스

토리를 고스란히 간지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도심의 광장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숲공원과 혼재하는데 마찬가지로 숲공원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숲공원은 소규모일 경우 우리네 근린공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유럽의 큰 숲공원은 넓은 숲과 잔디밭, 연못과 조형물, 숲길과 휴게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동네의 작은 숲공원도 노거수들로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 벤치와 산책길 등 간단한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그늘과 맑은 공기를 찾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층아파트군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삭막한 광주에 대목 중심으로 식재하는 숲공원이 우선 하나라도 대규모 재개발지역 구역이나 새로 근린공원 조성할 때 반드시 도입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광주에서 시가지에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명품 숲공원을 제대로 조성한다면 장차 전국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려 들 것 같다. 광주의 명소이자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유럽식으로 대목이 그늘을 만들어 주는 시내 숲공원은

우리나라 도시에서 대규모로 조성한 구릉지형 또는 산악형 공원 숲과 완전 다른 개념이다. 말 그대로 시내숲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다.

광주의 고밀도 아파트 건설붐이 난개발 양상을 보이면서 고도제한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목 숲공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찔한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보완적으로라도 그런 지구에 장차 노거수로 자라나게 될 대목숲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도시에는 밀집된 구도심이라도 로터리가 많이 있다. 도시의 토지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그들의 도시계획안목이 놀랍다. 교통사고방지과 교통흐름에 좋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인식되어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는 우리도 먹고살만한 토지보상비가 많이 드는 로터리 건설이 시작될 것 처럼 도시숲공원 도입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다. 관건은 어느 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하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에서는 먼저 선도해 타도시의 모범이 된 사례가 있다. 그건 바로 '푸른길공원'이다. '푸른길'이란 이름도 가장 먼저 사용하여 광주의 유명 산책로가 되었다.

푸른길이 조성된 지 10여년이 되어가고 높은 느티나무, 루브라참나무 등이 하늘 높이 솟아 있으니 삭막한 시가지의 오아시스로 평가받고 있다. 사시사철 도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여름 땀속에서도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우산으로 즐기는 시민들로 인해 결코 한산하지 않음도 직접 확인했다. 전천후 생태길로서 하찮은 듯하지만 광주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푸른길'로 명명된 숲길은 경전선을 이설하면서 광주역에서 호천역까지 폐선된 구간에 조성된 레일 트레일 형태의 숲길공원이다. 길이는 8.1km나 되어 어느 구간에서든 광주의 대표적 친환경 공간으로 인기 만점이다. 숲길 조성 당시 사단법인 푸른길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공원 만들기에 몰심양면으로 참여함으로써 푸른길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 앞장선 점도 패자가 가깝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사설

여수시, 상포지구 사후처리 어찌 할건가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를 미적거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일'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 점검결과에 따른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결과 공개에서 지난 2015년 7월 당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가 대표로 있는 G사가 상포지구 매립지 중 일부를 S건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 준공인가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건설이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여수시가 준공 승인을 내줬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여수시가 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제의 동기가 전 공무원 등이 연결돼 '방침 결정'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며 "방침 결정"의 의미는 당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전임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뤄진 것이니 현 권오봉 시장과 연결 짓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여수시는 그러나 부당행정으로 발생한 민원해결과 사업계획 수정 등 사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관련 공무원 인사 조치와 민·청사상 소송 대응만 언급, 지나치게 소극적 자세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으로 지역사회가 몹살을 앓아 왔고, 업자가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행정의 연속성은 고사하고 발뺌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여수시는 명확한 사후처리 입장을 밝히고 부당이익 환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선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제17대 총장으로 의학과 민영돈 교수를 뽑은 것이다. 당초 결선투표가 예상됐으나, 민 교수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올려 1차에서 선거가 마무리됐다 한다. 우선 민 신임 총장의 당선 축하하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속한 대학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사이 조 선대는 총장 자리를 놓고 구성원들 간 갈등을 반복하며,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빚어왔다. 지난해 6월 교육부 대학 역량 평가에서 자율개신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강동원 총장의 거취를 놓고 구성원들 간 갈등과 대립을 계속해왔다. 급기야 대학법인은 강 총장을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강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 냈으로써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교육부 소청심사에 불복한 대학 측이 총장선거를 강행 하자 강

총장 측이 선거중단 가져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선거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민 신임 총장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 해결과 눈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입시 등 각종 대학 현안이 그것이다. 강 총장이 학교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그동안 구성원들 간 남남해온 고소·고발·행정소송 등의 해결도 큰 짐이다. 아울러 입시사회 체제의 이시들 임기 종료가 오는 12월로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이후 대학 운영체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 신임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접고 지역민들이 사랑하는 100년 민립사학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으로 갈 것인지 여부가 민 신임 총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민 신임 총장과 힘을 합쳐 새로운 조선대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기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이 중요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

해외 질병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생했다. 정부는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으며,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 등

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발령되고 그 후 세 차례의 추가 발령과 시간연장 등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3번째 ASF 발생능가가 보고됐으며, 경기도 강화에 이어 파주·김포 모든 돼지에 대한 매수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는 등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폐사를 100%'에 이르는 ASF는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 방역망이 한번 뚫리면 급속도로 확산된다. 과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ASF를 퇴치하는데 무려 36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왜 이 질병에 대해 공포에 떨 수 밖에 없는 지를 알려준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경기 북부에서만 한정해 발

생하고 있고 전체 사육돼지에 비해 피해두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돼지고기 가격이 20% 정도 올라 유통되고 있다. 만약 방역에 실패한다면 양돈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원상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폭등이 일어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 먹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광주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시정·동물위생시험소·구정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소독과 이동제한 등 방역대책 준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관내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생식회를 공급·도포하고 이동차량 소독을 위해 거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도축장에 대한 소독과 검사

를 강화하는 등 최고의 방역대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는 현재 9농가 7,000여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데 양돈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편이지만 한 마리의 돼지라도 ASF 발생시 곧바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차단방역은 위험기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유지돼야 한다.

이번 ASF 발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처음이자 끝이 돼야 하고 빨리 종식돼야 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돼지농가에서는 매일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광주·전남에서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ASF 또한 막아낼 것이라고 믿는다.

특지광장

'비보호 좌회전' 의미 제대로 알자

도로를 운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교통표지판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표지판은 아마 비보호 좌회전일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탄력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해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등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통체계다.

이러한 비보호 좌회전을 마주한 운전자 중에는 어떠한 신호에 좌회전해야 할지 모르는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정답은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녹색일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끔 적색 신호일 때

뒤에서 좌회전하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된다. 또한 녹색 직진 신호에서 정확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바로 앞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항상 우선시 되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효율적인 교통체계지만 이 신호체계를 모르고 운전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 김영일

안개길 운전 교통사고 주의

최근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자주 발생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안개길 운전은 때로 빗길, 눈길 운전보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안개길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안개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감속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데 안개는 일교차가 심한 즉 기온이 떨어지는 밤과 아침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안개길 운전 시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켜고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인 경우 평상시 운행속도의 20% 감속하고 100m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속해서 운행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리는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책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모든 불을 켜고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한 후 운전자는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안개 낀 도로에서는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서행운전과 더불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운전을 습관화하여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자.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진민호

강산과 함께 변화한 광주여성영화제

기지사첩

지난 3일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 가운데, 우리 지역의 대표 영화제인 '광주여성영화제'의 개막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광주여성영화제가 1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이보람
문화부 기자

영화제는 지난 2010년 영상을 배우고 싶은 여성들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이 영화제는 단순한 영상제작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투' 운동과 함께 문명의 발달로 인해 새로 생긴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 관련 주제를 다뤘다.

영화제는 여성영화를 소개하며 성평등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 감독의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섰다. 과거 감독 개인 혹은 지인들과 사비를 들여 영화를 만드는 구조에서 현재는 제작비를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PD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감독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실제 영화제 1회 당시에는 20편의 작품이 상영된 반면, 지난해는 42편, 올해는 50여 편의 작품이 스크린에 오를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된다. '춤추며 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여성이 춤출 수 있는 세상,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함께 춤출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손을 맞잡고 춤추며 나아가는 여성들의 몸짓에 주목하는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또 이번 영화제에서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 전망을 영화인과 관객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성계, 영화계, 문화계 전반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는 어디쯤에 와있는지 함께 진단해보고 이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한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당)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	金善勇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집 부	(062) 720-1070	기 시 제 보	TEL (062) 720-1050-54
경 제 부	(062) 720-1066-67	기 획 실	(062) 720-1005	FAX	(062) 720-1080-82
사 회 부	(062) 720-1050-54	논 설 실	(062) 720-1032	E-mail	jndn@chol.com
사 회 2 부	(062) 720-1043-45	월 간 국	(062) 720-1006-07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관 리 국	(062) 720-1098	E-mail	jnmi1000@hanmail.net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 업 국	(062) 720-1011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